

---

# 2021년 제35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1. 8. 27. ~ 9. 2.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1. 8. 27.	시청률	0.099

## 【총 평】

장애인 자립, 성숙한 반려문화 촉구, 친환경 정보 소개 등 문화예술 아이টে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기획이 시선을 끌었다. 지하철역에서 초단편 영화를 보여주는 '우리동네 영화관'은 지하철역 고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공간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신선한 소재였다. '덩굴식물로 더위 막아요.'는 친환경 소재로 공기정화와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는 그린커튼을 소개한 정보제공 아이টে이었다.

'장애인 자립꿈 키워'는 소외계층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 등의 순기능을 알렸고, '반려인 능력시험'은 성숙한 반려문화를 촉구한 점이 돋보였다. 또 '지구촌에 부는 한국어 열기'는 세계 한국어교육자 대회를 통해 한국문화와 신한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인의 표정을 담아냈고 문체부와 교육부가 이들의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영국 출신 화가가 그렸다는 '충무공 초상화'는 화제성에서, 터키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관광산업을 재개했다는 소식은 해외뉴스로서 관심을 모았다.

## 【구성 및 내용】

### ■ 반려인 능력시험, 강제성 없어 실효책 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3가구 중 1가구라고 전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 서울시가 반려인 능력실패를 실시하는 관련내용을 소개하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잘못된 행태를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전했다.

### ■ 장애인이 만드는 빵, 직접 판매하며 자립해요

장애인이 빵을 생산하는 현장의 모습을 전하며 직업재활 현장과 빵을 판매하는 카페를 소개했다. 용인시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 ■ 전 세계 한국어 교사, 온라인으로 한자리에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는 13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는 44개 나라 450여명이 참가해 수업효과를 높이는 교육사례를 발표했다. 올해의 최우수상은 비대면 시대에 맞는 나만의 교수법을 제시한 우즈베키스탄의 고경란 선생님이 차지했다.

### ■ 햇빛 막아주고 공기 정화하는 '그린커튼'

덩굴식물을 건물 외벽에 자라게 하면 직사광선을 막아 건물 내부의 온도를 5도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고 미세먼지도 잡아줘 공기 정화 효과도 있다. 수원시는 2018년부터 그린커튼 사업을 시작해 현재는 공공건물, 요양원, 학교 등 39개로 늘어났다.

### ■ 100년 전 서양화가가 그린 '이순신 장군 초상화' 공개

영국출신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가 그린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가 통영 시립박물관에 기증되었다. 미국 이스트캐롤라이나 대학 명예교수 송영달 교수가 통영시에 기증했다. 조선시대 통영에서 전개된 수군훈련 장면을 그린 수군조련도 등이 전시 되어있다.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1. 8. 27.	시청률	0.062

### 【총 평】

다른 나라의 코로나19 동향과 백신의 의무화 및 필요성이 설명되었고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상황과 백신 접종 현황을 소개하며, 백신 접종만이 코로나19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했다.

10만 1천 가구 추가 공급,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각종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택시장 동향을 짚어보았다. 또 부동산과 밀접한 기준금리 인상 배경과 인상 후 경제 전망에 대해 상황에 따라 통화 정책 완화가 점진적으로 조정되며 부동산 시장 수급의 균형에 대해 희망적인 분석으로 전망했다.

‘알뜰신잡’에서는 ‘집콕 시대 건강 식단 가이드’에 관한 정보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식재료 준비법 및 음식 조리법과 식사법, 배달 음식 주문할 때 유용한 팁, 건강한 수분 섭취법 등을 소개했다.

### 【구성 및 내용】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전청약 확대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주택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수요가 공급을 앞선 것이기 때문에 ‘24년 상반기까지 신규 사전 청약 10만 1천 가구 공급’을 발표해 기존 물량을 포함할 때 약 16만 3천 가구가 공급되므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해결책이 될 것으로 설명했다. 청약시점은 과거와 달리 건축 시공 이전에 청약이 가능해졌으며, 민간 사전 청약제도도 도입했다.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공급방안에 따라 서울 등 도심 내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도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으로 1만 4000가구를 조기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일반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 후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소요되는 반면, 3080+ 공공사업은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지구 지정 후 분양까지 소요 기간이 2.5년 단축됐으며 이번 사전청약 확대 방안 시행으로 지구 지정 후 분양까지 1년 정도 추가 단축된다. 이에 따라 공급까지의 시차가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할 때 10년 이상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최근 10년간 주택 공급 전망 검토를 보면 결코 공급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지만 특정 지역에 대한 수요가 몰리다 보니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부는 향후 주택공급이 늘어날 것이므로 무리하게 주택을 마련하려고 ‘영끌’ 투자는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금리는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시중 자금이 부동산에 쏠리면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해 급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금리 인상과 추가 인상에 대한 예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산이 좋아 물이 좋아		
방송일자	2021. 8. 27.	시청률	0.000

### 【총 평】

‘남당리 조피디의 귀어 라이프 - 충남 홍성편’은 3년차 귀어 중년 부부가 남당항을 무대로 낚시점과 낚싯배를 운영하며 바다를 무대로 펼치는 휴먼스토리가 흡인력을 높였다. 특히 새벽 출항과 배에서의 일출 광경, 백조기 바다낚시, 숲과 바다로 어우러진 내동 모습 등 평화로운 바다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청량감을 줬다. 수산물의 보고인 남당항을 배경으로 귀어에 적응하며 어촌생활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이색적인 귀어 스토리가 소확행의 단면을 잘 표현해 주었다. 30-40대 부부의 귀어로 학생 수가 줄어 어려움을 겪는 어촌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활기를 되찾게 되는 측면을 부각한 점도 귀농과 귀촌의 순기능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 【구성 및 내용】

천수만 지대로 잔잔한 물결을 이루고 있는 충남 홍성 남당리의 바다는 유난히 은빛으로 반짝거린다. 아름다운 풍경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다양한 어종을 품고 있는 수산물의 보고로도 유명하다. 남당항의 매력에 반해 이곳으로 귀어난 젊은 부부의 삶을 소개했다.

귀어 3년차 부부가 운영하는 출조점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회사에서 일하다 바닷가를 찾아 여유로운 모습에 반해 귀어하게 된 사연과 지역 주민과 어울리려는 노력 등이 잘 전달되었다.

충남 홍성 남당항에 소재한 출조점은 귀어 3년차인 부부가 낚시하는 이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남편의 귀어결정에 대해 아내는 남편의 결정을 지지했다. 다만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거주공간이 바뀌는 것에 대한 적응이 어려웠다. 귀어 이후에는 마을일에 술선수범하며 동네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

새벽에 출항하는 낚싯배에 같이 타서 이야기를 나누고 배에서 맞이하는 일출을 보고 함께 낚시를 해서 백조기를 잡고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촬영과 취재가 이뤄져 흥미와 재미를 더했다. 새벽 5시 30분 낚싯배가 천수만을 빠져나와 대천 앞바다로 출조한다. 낚시 시작을 알리는 주인공의 안내방송에 따라 낚시객들은 낚시를 시작한다. 주인공은 낚시객들의 낚시를 도와주고 간식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낚싯배의 선장도 30대에 귀어 이후 낚싯배를 몰고 있다. 오후 4시쯤 되면 조재용씨는 집에서의 업무를 시작한다. 주인공이 운영하는 SNS 채널에 낚시 중의 영상 등을 편집해서 제공한다. 고등학교 시절 학교방송국에서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되었다.

8월 남당항에는 백조기가 한창이다. 낚시를 즐기기 위해 승선한 낚시꾼에게 서비스를 다하는 배워의 사무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낚시꾼들의 식사, 간식, 커피뿐만 아니라 낚시꾼들이 잡은 물고기 손질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부부의 꿈은 배를 마련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1. 8. 28.	시청률	0.158

### 【총 평】

‘공평의 숲을 아시나요?’편은 누구나 소외 없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가치를 보여준 의미 있는 치유의 시간이었다. 충북 진천군 백곡면에 있는 ‘공평의 숲’은 누구에게나 공평할 수 있는 숲, 공평하게 자리를 내어주고 공평하게 누리다 갈 수 있는 숲이다. 장애인이 있으면 불편하고 건강한 삶이 아닐 거라는 편견을 버리게 만들었고, 건강한 삶이 무엇이고 그것을 함께 하는데 자연의 역할과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가치 있는 기획 의도가 돋보였다. 숲으로의 귀촌, 공평의 숲을 만들게 된 계기와 두 자매의 생활상, 시각장애인 어린이와 그 밖의 등장인물들이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그려져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높였다.

### 【구성 및 내용】

숲을 직장으로 살아가는 자매의 삶을 만나보았다. 자매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 동생의 11살 딸이 후천적 시각장애아이다. 생후 3개월에 시력을 잃게 되었던 딸을 안고 절망하다가 우연히 숲에서 희망을 찾게 되었고, 이제는 딸이 숲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놀이를 할 수 있는 것을 보며 마냥 즐겁고, 앞으로 다른 장애아들을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시각장애인인 조카가 개구리 소리에 반응하는 걸 보며 숲으로 이끌었고, 숲이 많은 진천으로 귀촌하여 누구나 소외 없이 공평하게 즐길 수 있는 ‘공평한 숲’을 만들었다. Healing Play라는 회사를 차려서 숲에서 하는 놀이를 통해 치유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생거 진천 치유의 숲에는 숲놀이, 유아숲 체험원이 있다. 자매가 자연 휴양림 관리를 위탁받아 안전점검을 하며 하반기 오픈을 기다리고 있다.

장애인 아이를 둔 엄마의 심정을 절절하게 표현하면서도 아이의 장애를 인정하면서 특별하게 대하지 않고 자존감 높은 아이로 성장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시각장애인인 딸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만들어 주었고 그 중심에 자연이 큰 몫을 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 소중한 가치가 빛났다. 선천성 시각장애인인 주인공이 트리 클라이밍 체험을 하면서 소리와 촉각에 집중하면서 물구나무 체험까지 하는 모습이 잘 묘사되었고 주인공의 일상과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면모를 보고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도마뱀 먹이를 주며 관찰하고, 할머니 생신파티를 사진으로 남기며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은 감동이었다. 눈으로 보는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감각과 체험을 조카만의 언어로, 숲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바라는 귀촌인의 바람이 감동적으로 전달되었다.

청주 국립 상당 산성 자연휴양림에 시각장애인용 촉각 안내도를 설치하고 주인공이 읽어주는 구성도 의미 있었다. 2년 연속 지역사회공헌을 인정받은 ‘공평의 숲’ 숲에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공평하게 숲을 즐겨야 한다고 말하는 귀촌인 자매의 노력과 희망이 빛나는 치유의 시간이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1. 8. 29.	시청률	0.163

### 【총 평】

‘친북’은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고급주택단지 건설현장과 민생현장을 돌아보는 속내를 살펴보고, ‘이슈텔링’은 군 통신선의 실체와 왜 필요한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북한 측의 일방적 조치로 다시 끊긴 통신선의 재개를 촉구한 기획이 돋보였다. 평양 고급주택 단지의 입지적 조건과 내부 모습을 통해 북한에서도 주택을 사고판다는 내용을 알려 북한 최근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 밖에 북한 주택 건설의 속도전 실상과 문제점, 부작용을 사례를 설명했다. 북한이 경제난 속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배경과 의미를 분석하고, 주민을 위한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이 급선무임을 지적해 설득력을 높였다.

‘이슈텔링’은 남북 핫라인의 실체와 순기능을 제시한 뒤 남북의 긴장 해소와 신뢰 구축, 충돌 방지와 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 통신선의 운영 재개와 원활한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 【구성 및 내용】

8월 16일부터 26까지 2주간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예의주시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3주 만에 고급 빌라를 짓고 있는 건설현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북한 최고지도자로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의연한 자세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빌라는 당 간부를 위한 것으로서 경제난 속 간부들의 충성심을 독려하는 것으로 보이며, 김일성 주석이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살던 사저가 있던 곳으로 경관 등이 우수한 곳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 관영매체에 노출된 사진을 보면 외부는 물론 내부 인테리어까지 고급화,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 집을 가지고 있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새집을 주게 되면 기존 주택은 임대한다. 국가가 전력난을 겪으면서 고층아파트보다 저층아파트가 인기를 끈다. 이는 엘리베이터가 자주 멈추기 때문이다. 더불어 통풍시설이 취약하여 연탄가스로 인한 사망도 빈번하다. 평야 및 일부 대도시 외 북한 지방 도시들의 주택문제는 심각하다. 그런 집들에 대한 난방 등 시설 보완을 통해 기본적 주거 환경 개선이 보다 시급해 보인다.

1971년 이후 무려 15차례 남북 통신선의 단절과 복원의 반복된 역사, 남북의 통신이 단절 되었을 때 소통을 이어주는 비공개 소통의 연락선이 따로 있다. 비공개 통신선에 국정원 직통선이 있고, 인편으로 주고받던 시절도 있었다. 군 통신선은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당시 6.15 남북 공동 선언문에 철도 연결 내용이 담겼다. 2002년 군 통신선이 연결되었고 이후 아침, 저녁으로 정기적인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남북 통신선은 결국 긴장해소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다. 쌍방간 충돌 방지와 관계개선을 위한 연락수단으로서 남북을 연결해 주는 ‘끈’이다.

프로그램	라떼의 정석, 끈대할매라구요?		
방송일자	2021. 8. 29.	시청률	0.157

### 【총 평】

‘올로(Yolo)가 좋아’, ‘덕질은 나의 힘’라는 주제로 현재를 즐기는 삶을 중요시 하고 연예인 덕질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는다는 요즘 세대의 개성 만점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끈대 할매는 개미와 베짚이 우화를 예로 들어 젊어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수발러는 개미와 베짚이의 결론이 변했다며 개미는 평생 일만 하고, 베짚이는 노래를 불러 히트를 쳐서 부자가 됐다며 이 시대의 변화된 생각을 전했다.

끈대 할매는 올로족을 이해는 하지만, 정도는 지켜야 한다며 본인의 앞가림은 스스로 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했고, 문시월 씨는 시대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세대 간의 가치관과 생각이 차이가 발생하며,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일상이 플랫폼을 통하는 시대라는 점에서 그 문화 속에서 연예인 덕질에 빠지는 세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 【구성 및 내용】

문시월 씨는 올로족의 인생관에 대해서 현재를 열심히 사는 것이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올로족을 대변했다. 특히 여행을 즐기며 살아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을 다니지 못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다며, 이해가 필요함을 호소했다. 수발러가 눈앞의 일만 생각하고 먼 미래는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올로에 대한 윗세대들의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이 단시간에 빠른 성장을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세대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을 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타투에 대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록밴드의 문신과 똑같은 커플 문신을 했다는 문시월 씨의 얘기에 끈대 할매는 독하다고 표현했고, 문시월 씨는 개성이며, 인생에서 잊고 싶지 않은 것을 몸에 새기는 것은 자유라고 말했다.

‘덕질은 나의 힘’에서 끈대 할매는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무엇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며 못마땅한 점을 지적했지만 수발러는 요즘 성공한 덕후들은 연예인덕에 유명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문시월 씨도 단딘의 라디오 방송에 사연을 보내 기프티콘을 선물 받았다면 정말 밥을 먹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끈대 할매는 연예인을 귀여워해서 무엇에 쓰냐고 했지만 문시월 씨는 좋아하는 연예인 단딘의 긍정적인 마인드에 영향을 받아 삶의 에너지를 얻는다고 말했다. 부모님의 생신은 몰라도 연예인의 생일은 아는 문시월 씨의 일상에 대해서 끈대 할매와 수발러가 이다음에 꼭 너 같은 딸을 낳으라고 말하자 문시월 씨는 자신도 키우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대답했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1. 8. 29.	시청률	0.005

### 【총 평】

수소로 밝힌 '미래 에너지의 길'편은 그린 뉴딜의 핵심인 수소에너지가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수소경제 구축을 위한 과제 등을 살펴보았다. 그린 뉴딜의 핵심인 수소가 미래 산업의 쌀로 주목받고 있는 배경과 수소에너지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수소경제 중심으로 떠오른 울산시를 찾아 수소 생산부터 모빌리티까지 과정을 알 수 있었다. 제2의 반도체로 주목 받는 수소연료전지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며, 세계 세 번째로 수소 배관을 충전소에 직접 연결하는데 성공한 점, 그리고 세계 1위 수소 자동차 기술력 보유 등 미래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

### 【구성 및 내용】

'환경과 발전이 양립할 수 있는 문제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환경을 보호하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일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며, 전 세계 화석연료 에너지 의존도가 약 85%인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소에너지가 미래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는 20세기 이후 에너지원의 중심이 되었던 석유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수소'라는 점을 짚어주었습니다. 수소 에너지는 기존의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에너지를 개발하고 연소하는 데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혹은 '0'의 상태로 만들 수 있어서 지금의 기후 위기의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소로 밝힌 '미래 에너지의 길'이라는 부제로 세계가 수소에 집중하는 이유와 수소가 바꾸는 미래사회의 모습, 그리고 세계적 수소 경제 중심으로 우뚝 선 울산광역시 수소 경제시대를 이끌기 위한 연구 현장까지 그린 뉴딜의 핵심인 수소를 이해하는데 유익한 시간이었다. 수소에너지 설명에서부터 우리 생활에 활용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울산에서 진행 중인 생생한 연구 현장 등이 눈길을 끌었다. 울산은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국내 최초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한 수소 지게차, 무인운반차 등의 운행 실증에 착수했다. 재생에너지는 변동성과 지리학적 불균형으로 예측이 어려운데,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적절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수소이며, 다재다능한 에너지 운반체로서 수소공급망 형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기술의 원리는 딱딱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진행자는 출연자의 설명을 잘 정리해 매끄럽게 전달했다. 수소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갑자기 화학 수업에 온 것 같습니다."라며 분위기를 전환하고 "수업 잘 들었습니다."라며 자칫 딱딱한 이론 설명을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등 순발력과 정리능력이 돋보였다. 또 '수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강의실 모습을 애니메이션 화면으로 구성했는데, 딱딱할 수 있는 과학 원리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화면 구성이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1. 8. 29.	시청률	0.000

### 【총 평】

‘이달의 뉴딜 - 바다의 미래, 국민돌봄이’편은 우리 곁에 친근하게 다가온 디지털 뉴딜의 사례로 디지털 친환경 선박, 국민비서, 인공지능 돌봄 활용 모습을 소개해 디지털 뉴딜 정책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였다.

‘디지털 친환경 선박’에서는 화물선박과 차량 운행으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이 늘어 적신호가 켜진 부산항의 사례를 들어 디지털 친환경 선박의 등장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량과 탈탄소 성과를 거두는 성공사례를 소개해 디지털 친환경 정책이 왜 필요한지 설득력을 높였다. 정부에서도 해운산업의 스마트 친환경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을 15% 늘린다는 계획을 알려주었다. ‘인공지능 돌봄’에서는 우리 생활에서 이미 편리하게 쓰이고 있는 내 손안의 비서 ‘국민비서’ 구뵀와 인공지능 돌봄이 ‘다솜이’의 활용사례를 소개해 수용자들의 관심을 유발했다. 또 국민비서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적용범위의 확대, 인공지능 돌봄 다솜이 보급 현황과 서비스 확대 계획을 소개했다.

### 【구성 및 내용】

선박의 디지털 친환경 전환을 주제로 선박회사가 주도하는 탈탄소화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산항을 찾아 수출주도 경제발전으로 대표적 수출항구로 성장했고, 내일의 위한 혁신의 무대가 되고 있으며, 디지털 친환경 전환으로 글로벌 해운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2030년 까지 국내 친환경 선박비율을 15%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 세계적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2050년까지 제로에 가까운 수치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항만과 선박의 친환경 변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HMM이 글로벌 탄소배출 제로연대 가입과 국내 해운선사 최초의 탄소 중립 목표 선언 등 기업 차원에서 그린뉴딜 적극 참여해 이달의 뉴딜에 선정됐다. 대한민국을 넘어 바다의 미래를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비서 구뵀는 내게 필요한 행정 정보를 앱이나 문제 메시지를 통해서 안내해 주는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로 백신접종부터 과태료, 범칙금까지 8종의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민간기업이 합작으로 디지털정보를 진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꾸는데 일조하고 있다. 서초구에서는 지역의 위로운 어르신들에게 다솜이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 말벗기능부터 약 복용 시간 알림, 긴급상황 지원 서비스, 커뮤니티 기능까지 다솜이는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돌봄을 제공한다. 현재 전국 35개 지자체 1740여 가구에 보급해 돌봄서비스의 공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내삶의 활력소가 됐다”는 인공지능 돌봄 다솜이를 활용하는 어르신의 인터뷰는 국민의 삶을 돕는 정책이 곧 수용자 니즈를 살린 좋은 정책의 표본임을 보여주었다.